

# 도민 곁으로 한발 더

“도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수장에 전주 현대미술관장을 지낸 이기전 신임 대표이사(65)가 취임했다. 재단 출범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신생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특히 재단운영 방향성 정립이 확고하지 않아 불안함을 보이고 있어 새로 취임한 이기전 대표이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방안에 대해 “지난 5년동안에는 주로 재단 기반조성에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전북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 전북 도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화 예술인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 기업에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분야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서해안에 드넓게 펼쳐진 새만금과 전북 탄소섬유의 융복합 등을 언급하며 “예술가의 눈으로 작품을 만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전북 관광1번지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다”며 “관광과 예술이 접목된 전라북도 문화·관광 분야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이 일상화 돼있는 요즘 도민들에게 전통방식과 AR, VR같은 가상현실을 접목한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 공연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이사는 “우리사회에서 노인 한 명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역사 한편이 사라지는 것이다”며 “이에 도민 한



삼례문화예술촌 VMO아트미술관

“예술가의 눈으로 작품을 만들면 많은 관광객 유치 가능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 기획 중요”



전주현대미술관 내부 모습

사람 한사람이 모두 소중하며 이들이 곧 전북도의 예술 자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는 지난 6월 3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청문 결과는 5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도의장의 검토를 거쳐 8일 도지사에게 청문결과를 송부했다. /정은성 기자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최근 전주매일 본사를 방문해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가운데)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 ▶ 이기전 대표이사의 포부

“문화에 대한 현실 참여  
예술인 복지 향상에 총력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융복합 추진도

▲대표이사가 되신 소감 한마디 말씀 드리신다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전북에서 태어나 지역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해 온 제가 예술가에서 지역의 행정가로 거듭 나게 되니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병이리가 아를 뚫고 나오기 위해 새끼와 어미가 동시에 인퐁에서 조아야만 하는 ‘줄타동시’의 자세로 도민과 예술인의 욕구와 기대 그리고 재단의 노력이 서로 한 지점에서 만나 그동안의 틀을 깨고 새로운 문화·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단은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재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립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해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독창성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관광분야의 예산 확보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관광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현실 참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예술인의 복지와 권리 향상,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문화·관광 융·복합, 메세나를 통한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 등 중점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이기전 대표이사 프로필

### ▲주요학력

- 전주 영성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미술학(서양화) 학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미술학)

### ▲주요경력

- 전북대학교 객원교수(2019년 9월~현재)  
- 예술교육 산·학·관 커플링사업단
- (사)국제미술협력기구 이사(2018년 1월~현재)
- 전주 현대미술관 관장(2018년 12월~2020년 6월)
- 삼례문화예술촌 VMO아트미술관 관장(2013년~2017년)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